

東 南 亞

東南亞 一般

7월 4일 • 2010년에 역내 투자자유화 계획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투자유치기관 대표 회의에서 역내 투자자유화를 목표로 한 ASEAN 투자지역(AIA)계획을 98년 가을부터 시작, 2010년에 완성하기로 함. 同 회의에서 ASEAN의 성장을 위해서는 역내투자교류를 활발히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자유화가 필요함에 모두가 동의함. 同 계획의 주요 내용은 투자규제완화, 투자수속 명확화, 공동화 등임.(5일자 日經)

7월 6일 • ASEAN 회원국 경제정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추진

ASEAN은 오는 2010년까지 ASEAN 회원국의 각종 경제 및 산업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을 발표함. 同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며 완전가동은 2020년에 이루어질 계획임.(7일자 한경)

7월 8일 • ASEAN 4개국 보험사, 새로운 고객서비스 협정체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ASEAN 4개국 보험사는 새로운 고객서비스 협정을 체결함. 同 협정에 의해 한 보험사의 고객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언제든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향후 다른 ASEAN 보험사들이 이에 참여함으로써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Reuter)

7월 9일 • ASEAN 각국, 통화안정위해 금융시장에 개입

ASEAN 각국은 자국의 통화안정을 위해 금융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보임. 현재 ASEAN 통화시장교란의 출발점이 되었던 태국 외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통화위기의 여파로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음. 자국통화방어를 위한 금리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각국의 경기회복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임.(10일자 日經)

7월 10일 • 캄보디아의 ASEAN 가입 연기 결정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긴급외무장관회의에서 7월말로 예정되었던 캄보디아의 ASEAN 가입 연기를 결정함. 훈센 캄보디아 제 2총리는 대규모 전투를 통해 라나리드 제1총리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지난 91년 파리평화협정 이후 형성된 캄보디아의 평화구조를 사실상 붕괴시킨 바 있음. 그동안 미얀마의 군사정권에 대한 서방의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보았던 ASEAN도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국제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임.(11일자 日經)

7월 23일 • 미얀마·라오스, ASEAN 가입

미얀마와 라오스가 ASEAN에 가입함. 이로써 30년전인 1967년 5개국으로 출발했던 ASEAN은 9개 회원국, 총인구 4억 7,000만 명의 거대 공동체로 성장하게 됨.(日經)

7월 26일 • 아시아의 중앙은행, 통화안정 방안 논의

자국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에 직면한 아시아의 중앙은행들은 상해에서 회의(EMEAP)를 갖고 통화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함. 한편 同 회의에서 각국의 과도한 부동산관련 대출이 통화위기의 주요인이며 향후 同 부문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 EMEAP의 위상강화와 관련, IMF와 협력하여 상호대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Business Times)

7월 27일 • ASEAN 지역포럼, 亞·태지역의 정치·안보문제 논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문제를 협의하는 ASEAN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 제4차 회의가 7월 27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 및 이와 관련 발표된 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미얀마 민주화문제 - 미얀마에 대한 건설적 관여를 촉구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려는 ASEAN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 ② 캄보디아 사태 - ASEAN의 조정역할을 지지하고 同國의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는데 힘쓴 ASEAN의 노력을 환영 ③ 韓半島 문제 -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4者회담을 적극 지지 ④ 南中國海를 둘러싼 영유권분쟁 문제 - 국제연합의 해양조약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 ⑤ ARF의 기능강화 및 위상제고 - ARF의 기능을 이제까지의 신뢰구축기능에서 한 단계 나아가 예방외교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분쟁해결메커니즘을 개발키로 함.(29일자 Business Times)

인도네시아

7월 2일 • 인도네시아, 중국어 사용규제 계속키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1965년 공산당의 쿠데타 사건 이후 실시해온 중국어 출판물 및 간판사용을 당분간 계속 금지할 것으로 알려짐. 인도네시아는 홍콩의 중국반환식에 알리알라타스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을 파견하는 등 對中國 관계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중국계 주민의 권리확대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1965년 공산당의 쿠데타 배후에 중국공산당이 있었다고 주장, 1968년 양국간 외교관계를 단절한 후 중국어 서적 및 간판사용을 금지함. 그후 양국간 국교는 1970년에 회복되었으나,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日經)

7월 7일 • 인도네시아, 관세인하 등 경제관련 조치 발표

인도네시아는 1,600개 품목(제조업 146개 품목, 농업부문 136 품목, 보건부문 3개 품목 등)의 관세를 인하함.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평균 관세율은 13%에서 11.9%로 낮아졌으며, 관세율이 0~10%인 품목이 전체의 62.55%로 확대됨. 또한 그동안 國家商品 統制局(BULOG)이 독점해왔던 설비수입을 자유화했으며, 지난달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부문에 대한 대출확대를 억제

하기로 함.(Reuters)

7월 9일 • 스미토모상사 등, 인도네시아의 지열 발전설비 수주

일본의 스미토모상사와 후지전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최대규모의 지열발전 설비를 약 290억엔에 수주함. 同社들은 이미 현지에서 사업주체인 독립발전사업자(IPP)에 출력 11만 킬로와트의 터빈발전기 2기를 납품했으며, 토목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함.(日經)

7월 10일 • 韓-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및 자원개발협력 위원회 폐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7차 韓-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폐막됨. 임창렬 통산부 장관을 수석대표로하는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교역 및 투자확대, 에너지·자원관련 교역 및 공동개발 확대, 원자력발전 및 태평양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 확대 등에 합의함.(11일자 일간무역)

7월 11일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루피아의 변동폭 12%로 확대

인도네시아은행(중앙은행)은 이날, 루피아의 1일 변동폭을 지금까지의 8%에서 12%로 확대함. 변동폭의 확대는 1996년 9월에 5%에서 8%로 확대한 이래 처음임. 이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루피아 시세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泰國의 바트화, 필리핀의 페소화가 투기자금에 의해 잇따라 매각됨에 따라, 루피아가 차기 표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중앙은행은 매일 달러화에 대한 루피아 시세를 기준치로서 공표하고 있음. 이것을 기초로 변동폭을 설정하고 시세가 이 변동폭을 상하로 돌파하게 되면 개입함. 변동폭을 12%로 확대한 것은 변동폭의 중심치 중에서 상하 6%의 시세 움직임을 중앙은행이 용인하는 것을 의미함. 새로이 설정된 변동폭은 1달러 = 2,374~2,678루피아(폭 304포인트)임.(日經)

7월 11일 • 인도네시아, 韓國으로부터의 완성차 無稅輸入 종료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메이커인 티모르 푸트라 내셔널社は 韓國으로부터의 완성차 無關稅 수입을 거의 완료했다고 밝힘. 同社は 앞으로 국내 생산에 전념하며, 국민차 계획을 계속 추진함. 티모르社は 정부로부터 약 4만 5천대의 완성차를 無關稅로 수입하는 허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입한 것은 4만대 정도임. 1,500대 이상을 남기고 수입을 중단한 배경에는 국민차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日本 등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배려인 것으로 보임.(日經)

7월 15일 • 日 토멘, 인도네시아의 통신사업에 진출

日本の 토멘은 英國의 대형 통신업체인 케이블 앤드 와이어리스(C&W) 등과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통신사업에 진출함. 양사는 협력하여 칼리만탄 지구의 사업회사를 통하여 2010년까지 同 지역내의 통신사업을 전부 담당할 계획임. 한편 토멘은 同 지구에서 23만 7천회선분의 신규 전화망 건설공사도 2억 3,800만달러로 일괄수주하였으며, 또한 同 지구에서 15년간의 통신사업권을 가진

현지기업인 마야 미토라 마린드의 주식 9.68%를 얼마전 취득함.(日經)

7월 17일 • 인도네시아 원조국, 53억달러 지원 합의

세계은행 주최로 개최된 인도네시아 원조국회의가 이날 동경에서 폐막, 주요 국들은 1997년 중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로 53억달러를 지원키로 약정함. 한편 日本은 총금액의 1/3인 18억 7천만달러를 원조하기로 약정함.(18일자 日經)

7월 22일 • 자카르타 외환시장, 루피아의 시세 급락

자카르타 외환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통화인 루피아의 對美 달러시세가 급락함. 지난주말의 하락 폭은 1% 이상을 기록, 태국 바트화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아시아 통화 불안이 발생한 이후 최대임. 유력 아시아 통화인 말레이시아 달러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는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미 루피아의 변동 폭 확대 등의 대응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개입의 가능성은 부정하고 있음. 18일의 루피아 시세는 전일의 싱가포르 시장 등의 약세를 배경으로 1달러당 2,480루피아 전후에서 거래가 개시됨. 오후 들어 유럽세가 본격적으로 거래에 참가하자 하락속도가 빨라져 오후에는 2,508루피아 전후에서 거래를 끝냄.(日經)

7월 23일 • 日本 히노자동차 공업, 인도네시아에서 트럭 합작생산

日本 히노자동차 공업은 현지 대형재벌인 사림그룹, 스미토모상사와 합작으로 트럭 제조·판매회사를 설립하여 1998년 가을에 생산을 개시할 계획임. 현재는 同 그룹에 생산·판매를 위탁하고 있지만 합작사업으로 전환하여 생산·판매의 효율을 높여 현지 트럭 시장 점유율 1위인 미쓰비시자동차공업을 추격한다는 계획임. 새로운 회사의 자본금은 약 22억엔으로 히노자동차가 39%, 스미토모상사가 10%, 사림그룹이 51%를 출자함.(日經)

7월 24일 • 韓-인도네시아 통상장관 회담 개최, 기아문제 논의

임창렬 통상부장관과 통키 아리위보오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장관은 기아그룹의 부도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함.(25일자 서경)

7월 27일 • 기아, 인도네시아 국민차 합작생산 계속

기아그룹은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PT. 티모르 푸트라 내셔널사와 국민차 합작생산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인도네시아의 자와 포스트가 보도함.(28일자 서경)

7월 28일 • 티모르 푸트라 내쇼날社, 자국 은행들에 11억 3천만 달러 요청

인도네시아 국민차 회사인 티모르 푸트라 내쇼날社의 회장인 후토모 만달라 푸트라(수하르토 대통령 3남)는 국영 및 민간은행 콘소시엄에 대해 차감백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으로 11억 3천만 달러를 요청함. 이름이 밝히지 않은 한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들로 하여금 티모르 푸트라 내쇼날社에 13억 달러를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7월 24일자 Reuter)

7월 28일 • 인도네시아 경찰, 시위자 64명 체포

인도네시아 경찰은 유혈 반정부 시위 1주년을 기념해 시위를 벌인 야당 지도자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라 여사의 지지자 64명을 무허가 가두시위 혐의로 체포함.(29일자 세계)

7월 30일 • NTT 도코모, 인도네시아사와 차세대 휴대전화에서 협력

NTT 이동통신망(NTT 도코모)은 인도네시아 최대의 통신사업자인 PT텔레콤사와 차세대 휴대전화의 규격개발 협력 각서를 교환함. 차세대 규격의 무선 방식으로서 도코모가 개발하고 있는 광대역 CDMA(W-CDMA, 부호분할 다원접속) 기술의 교류 등이 중심임.(31일자 日經)

8월 1일 • 일본수출입은행 등 9개 은행, 인도네시아 銅鑛山 개발에 5억달러 융자

일본수출입은행을 비롯 9개 은행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도네시아 순바와섬의 바츠 히자우 銅鑛山 개발 프로젝트에 총 5억달러를 융자하기로 함. 同 광산은 1999년부터 연간 22만톤의 銅精鑛을 생산하여 日本의 비철 메이커 등에 공급할 계획임. 일본수출입은행은 “銅의 확보는 경제안전 보장상 매우 중요하다”며 3억 5천만달러의 융자를 결정했으며, 스미토모은행, 東京三菱銀行을 간사로 하는 민간 9개 은행도 협조융자에 응함.

말레이시아

7월 11일 • 말레이시아, 자국통화 방위에 주력

바트화 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통화불안이 주변국으로 파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通貨 高評價 政策을 취해온 말레이시아는 자국 통화에 대한 매각압력이 강해지자 통화방위에 주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통화가치 하락 동요가 수습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日經)

7월 22일 • 말레이시아, 금년의 GDP 목표 성장률 8.2%

말레이시아 정부계 싱크탱크인 말레이시아 경제연구소(MIER)는 1997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종래 예상의 8.2%로 현행유지한다고 발표함. 同 연구소는 泰國 바트화 하락을 계기로 한 아시아 통화 하락의 영향은 말레이시아로도 파급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고 지적함. 1997년은 소비가 7%, 설비투자가 12%로 모두 순조롭게 신장되어 내수 주도형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1998년 GDP 성장률도 8.5%로 예측함.(24일자 日經)

7월 23일 • 야마하발동기, 말레이시아의 2륜차 사업 강화

日本의 야마하발동기는 말레이시아의 2륜차 사업을 강화하기로 함. 현지의 제조 합작공장을 이전하여 신공장을 건설, 생산능력을 80% 확대하는 한편 현지

수요에 대응한 2륜차를 개발하기 위해 R&D의 합작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기로 함. 제조 합작회사는 1997년에 현지의 혼론 인더스트리社와 합작으로 설립한 '혼론 야마하모터' 임. 同社는 현재 세랑골州 샤아람에 연산 10만대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내년 4월 중순까지 세랑골州 승가이브로로 이전하고 생산능력을 동 18만대로 끌어올릴 계획임.(日經)

7월 28일 • 솔로스, 동남아시아의 통화 동요 개입설 부정

英國의 파이널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의 동남아시아 통화의 동요를 초래했다며 말레이시아의 마하틸 수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美國의 투자가 조지 솔로스씨는 "6월 16일에 바트貨를 1천만달러분 매각한 것을 제외하면 과거 2개월간 바트貨나 말레이시아의 링기트貨를 매각한 적은 없다"고 밝히면서 동남아시아 통화에 대한 투기를 부정함.(30일자 日經)

7월 29일 • 말레이시아, MSC 참가모집 개시

말레이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MSC) 계획을 관할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개발공사(MDC)는 전자정부, 다목적 카드등 4개 개발 대상 부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결정, 국내외 기업의 참가모집을 개시함.(日經)

필 리 핀

7월 10일 • 필리핀 회교세력, 정부와 평화협상 재개

최근 필리핀의 마귀다나오(Maguindanao)지방에서 정부군과 교전을 벌임에 따라 정부측과의 평화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던 회교세력인 모로 민족해방전선(MNLF)은 정부측과의 평화회담을 재개한다고 발표함.(11일자 Reuter)

7월 11일 • 필리핀, 페소(Peso)貨 하루 변동폭 확대

필리핀정부는 외환시장에서 上下 1.5%로 고정되어 있는 페소貨의 하루변동폭을 확대한다고 발표함. 同 발표직후 페소貨의 가치가 11%(26.40페소에서 29.45페소) 급락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변동환율체제에 돌입하였음을 의미함.(Reuter)

• 한국통신, 안티폴로市 교환기 1만회선 개통

한국통신은 총 3,900만달러를 투자해 지난 94년부터 추진중인 필리핀 전화망 확장공사 프로젝트중 수도권 리잘(Rizal)州 안티폴로市의 국산 TDX-10교환기 1만회선을 개통했다고 발표함.(12일자 한경)

7월 13일 • 필리핀, 4개업종 보호관세 유지

필리핀정부는 자동차, 화학, 섬유 및 타이어 등 4개부문을 보호육성이 필요한 주요산업으로 선정, 보호관세유지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함.(Reuter)

7월 25일 • 쌍용, 필리핀 발전설비 수주

쌍용은 필리핀 탈락(Talac)지방에 민간전력공급 사업자인 TPC社와 1,200만달

러의 발전설비공급 건설과 시운전을 포함하는 턴키계약서에 조인했다고 밝힘. 쌍용이 건설하게 되는 발전설비규모는 중소형인 12MW급으로 쌍용은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 내년 8월에 완공할 계획임.(26일자 매경)

7월 30일 •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필리핀투자청(BOI)은 1월~5월간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3억 4,360만달러)대비 66%감소한 2억 3,53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작년 5,690억달러를 투자하여 對필리핀 최대투자국인 日本도 同 기간동안 740억달러를 투자, 전년 동기대비 68% 감소하였음.(Reuter)

泰 國

7월 2일 • 변동환율제 실시

泰國 중앙은행은 現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함. 泰國는 그동안 8개국 통화에 의한 고정환율제도인 복수통화바스켓제를 환율제도로 유지하여 왔음. 同 발표 직후 泰國의 외환시장에서는 24바트(Baht)대를 유지하던 對달러 환율이 29바트대로 폭락했음.(Nation)

7월 5일 • 泰國, 미얀마로부터 전력 수입키로

泰國政府는 2010년까지 미얀마로부터 1,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구매하기 위한 각서에 서명했음. 이외에 양국은 송전 및 배전시설부문도 협력하기로 합의함. (6일자 Bangkok Post)

7월 6일 • 駐泰 스리랑카大使館 개관

락쉬만 카디르가마르(Lakshman Kadirgamar)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駐泰스리랑카 대사관 개관식에 참여하기 위해 泰國를 방문함.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昨 라추업(Prachuap) 泰國 외무장관과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교역 및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BIST-EC(Bangladesh-India-Sri Lanka-Thailand Economic Cooperation)내에서 양국간의 역할에 관해 논의함.(Reuter)

7월 9일 • 투자청, 17건 프로젝트 승인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은 966억 4,700만바트규모 17건의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함. 투자청관계자는 금번에 승인된 프로젝트의 투자대상지는 제3지역에 9건, 제2지역에 7건 그리고 제1지역에 1건 등이라고 밝히며, 3,033개부문에 대해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함.(10일자 Bangkok Post)

7월 11일 • 대우전자, 泰國에 냉장고 공장 준공

대우전자는 泰國의 다이스타社와 30대 70의 비율로 총 2,000만달러를 합작투자해 라영(Rayong)공단에 연간 10만대 생산규모의 Non-CFC냉매 사용 냉장고 공장을 준공했다고 발표함.(12일자 일간무역)

7월 29일 • 뉴질랜드 외교무역부장관 방문

돈 맥किन(Don Mckinnon) 뉴질랜드 외교무역부장관은 23일~28일간 ASEAN 외무장관에 참석후 泰國를 방문함. 맥किन장관은 차왈릿총리와 나롱차이 상광 장관을 만나 양국간 교역증대 방안에 관해 논의를 가졌으며, '泰國-뉴질랜드 행동지침(Thai-New Zealand Action Agenda)'에 서명하였음. 同 지침에는 양국 간의 교역은 물론 농업, 교육, 관광 및 메콩江流域開發에 뉴질랜드 참여시 泰國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Reuter)

싱가포르

7월 7일 • 5월 제조업생산, 감소세로 반전

지난 4월 몇 개월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되었던 제조업생산이 5월에 다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화학(8.7%), 인쇄·출판(8.3%), 전기장비(3.2%) 등 업종은 상승한 반면 전자(-0.1%), 기계 및 장비(-5.2%), 운송장비(-0.4%), 조립금속제품(-14.7%) 등 업종은 하락세를 보임. 그러나 디스크 드라이브 및 통신장비의 생산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됨.(Reuter)

7월 8일 • 물류산업 발전위한 LEAP 프로그램 추진

싱가포르의 수출진흥 및 국내경제발달에 있어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물류진흥 및 응용프로그램(LEAP)을 추진키로 함. LEAP은 무역개발청 등 정부부처와 물류회사, 연구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솔루션 공급자 등 물류산업관련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임. LEAP의 주요 목표는 인력개발, 사업증진, 인프라개발, 기술응용 등임. 매년 10여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實時間 재고관리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10일자 Reuter)

7월 10일 • 전자상거래 감사기구 설립 및 관련법안 검토

싱가포르정부는 전자상거래문제에 관한 공식 감사기구인 넷트러스트(Netrust)를 구성하고, 또 전자상거래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넷트러스트는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 보증하는 역할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임.(Reuter)

7월 11일 • 재무부, 97/98회계년도 예산 발표

싱가포르 재무부는 97/98회계년도 예산을 발표함. 기대되었던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인하는 없었지만 경제 및 사회간접자본개발 관련 지출이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발비의 비중이 증가한 특징을 보임. 또 지역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인센티브가 확대되었음. 리차드 후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의 특징을 안정성장유지, 잉여 분배, 금융서비스부문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으로 요약함.(Reuter)

7월 12일 • 싱가포르 최대 보험사, 보험증권 대출이자율 인하

싱가포르의 최대 보험사중 하나인 NTUC Income社는 금년 8월 1일부터 보험 증권대출이자율을 6.5%로 0.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힘. 대부분의 생보사들의 대출이자율은 7.0~8.0% 수준임.(Reuter)

7월 17일 • 싱가포르 통화청, 싱가포르달러 평가절하 허용

싱가포르 통화청은 최근 여타 동남아국가의 평가절하 움직임 및 자국의 수출 증진을 위해 싱가포르달러의 평가절하를 허용키로 함. 이로써 싱가포르달러는 지난 95년 2월이래 최저치인 1.4595 싱가포르달러를 기록하였음. 최근 몇 주간 외환시장에 개입했던 통화청은 이날 시장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절하를 용인한 것임. 싱가포르달러의 경우 다른 동남아국가의 통화와는 달리 공급이 철저히 통제되고, 싱가포르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해 투기꾼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18일자 F.T.)

7월 21일 • 2/4분기 수출증가율, 두자리수 달성할 듯

지난 1/4분기 1.4%에 머물렀던 수출증가율이 2/4분기에는 1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수출증가율이 두자리수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게 된 배경은 비석유류수출의 주요 대상국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경기의 회복, 전자부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증가, 외국인투자급증에 따른 생산 및 수출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음. 그러나 전자부문의 경쟁심화로 인해 同 부문의 이윤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Reuter)

7월 23일 • 샘비왕社와 주룽조선소 합병

샘비왕社와 주룽조선소가 합병함. 이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수리 전문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음.(Reuter)

7월 29일 • 싱가포르, 첫 웨이퍼생산공장 건설

싱가פור는 독일의 실리콘 웨이퍼 메이커인 Wacker Siltronic AG社가 6억 마르크를 투자하여 싱가포르의 첫 실리콘 웨이퍼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현재 싱가פור는 9개의 웨이퍼 조립공장만을 가지고 있음. 공장이 완성되면 월 25만개의 8인치웨이퍼를 생산하게 됨. 同 공장은 다음달에 착공하여 99년 중반에 완공할 예정임.(Business Times)